



모험... 스틸...

구례 섬진강서 22일 전국 래프팅 대회

구례 섬진강에서 모험과 스틸 넘치는 래프팅 대회가 열린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구례 섬진강에서 '제2회 도지사 배 전국 래프팅 대회'가 개최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섬진강을 수상 스포츠 메카로 만들어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종목은 래프팅과 카약 분야로 진행되며, 래프팅은 일반부와 선수급인 마스터스로 나뉘어 운영된다. 참가 규모는 전국에서 선수와 가족을 포함해 1천여 명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대회 당일 래프팅 무료체험, 서바이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대회를 찾은 선수 가족과 관광객 등에게 래프팅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회 참여 희망자는 섬진강 래프팅협회(061-783-2780·팩스 061-783-2789)로 서면 접수 또는 이메일(ing1967@hanmail.net)을 통해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경기 전까지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조정훈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섬진강에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도록 선착장 및 부대시설을 마련해 아카데미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섬진강을 4대 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성>

코리아 'EPL 4인방' 박지성·설기현·조원희·이청용

꿈의 무대 우리가 접수한다

치열한 주전경쟁 돌입... 15일 프리미어리그 대장정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2009-201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을 앞둔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조원희(26·위건), 이청용(21·볼턴), 설기현(30·풀럼) 등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4인방의 화두는 치열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시즌은 박지성을 비롯해 사실상 새 출발을 하게 된 조원희와 이청용, 설기현도 유럽 3대 리그 가운데 하나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쉽게 주전을 꿰찰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박지성=박지성은 시즌 개막을 1주일 남겨두고 치른 FA 챔피언스리그와 커뮤니티 실드에 선발 출전해 올 시즌 주전 가능성을 밝게 했다. 지난 2005년 7월 맨유에 입단한 박지성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섯 시즌째를 맞으면서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의 신임도 계속 쌓아 온 상태다. 큰 부상도 없는 데다 12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에 나선 한국 축구대표팀 명단에서도 빠지면서 시즌 초반 맨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맨유가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신예들과 경쟁은 더욱 불꽃이 튀길 전망이다. 박지성은 올 시즌을 앞두고 맨유에서 영입한 강력한 라이벌 안토니오 발렌시아(24)를 포함해, 루이스 나니(23), 조란 토시치(22) 등과 주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급 잉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의 공백을 메



<이청용>



<조원희>

우는 게 급선무인 퍼거슨 감독으로서도 젊은 선수를 기용하며 시즌 초반부터 호날두 대안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지난 시즌 막판 한국인 선수로는 여섯 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던 조원희는 주전 경쟁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지난 시즌 후 스티브 브루스 전 감독이 떠나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신인 사령탑의 눈도장을 다시 확실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 초 위건에 입단하고도 좋아리 부상 등으로 시즌 막판에 가서야 겨우 데뷔전을 치렀던 조원희는 위건이 최근 영입한 헨드리 토마스, 호르디 고메스와 포지션이 겹쳐 험난한 주전 경쟁도 기다리고 있다.

▲이청용=한국 축구대표팀의 불박이 '오른쪽 날개' 이청용은 한국인 선수로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어린 나이에 불타 입성에 성공, 앞으로 활약에 따라 입지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전술의 다양화를 노리는 게리 맥스웰 전 감독은 지난 시즌 측면 미드필더가 없어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포츠머스에서 오른쪽 미드필더

선 데이비 이어 이청용은 이청용은 와 경쟁이 불가 터는 정규리그 기를 동시에 치 정 탓에 이청용을 이 크다.

▲설기현 아 프로축구 개월 동안 을 마친 설기현은 프 귀를 통해 제도약을 다 지난 1월 알 힐랄에 합 류했던 설기 현은 정규리그와 크라운프



<설기현>

스를 영입한 데 을 데려왔다. 우선 데이비스 피하다. 하지만 볼 와 컵 대회, FA컵 경 려야 하는 강행군 일 충분히 활용할 공산

= 사우디아라비 구 알 힐랄에서 6 의 임대선수 생활 리미어리그 복 집하고 있다. 류했던 설기 현스컵, 아 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5개의 어 시스트를 기록했고, 지난 5월12일 알 사바파 사우디 아라비아 킹컵 준결승 2차전에서는 첫 골을 사냥하 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2009-2010시즌을 앞두고 지난달 치른 풀럼의 프리 시즌 매치 5경기(4경기 풀타임, 1경기 교체 출전)에도 모두 출전하면서 주전 가능성을 밝게 했다. /연합뉴스



박지성 '척추 CF' 모델 데뷔

무기의 시범에 따라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박지성이 척추치료를 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의 '123 척추 체조' CF 모델로 데뷔한다. 척추건강 CF에 출연한 박지성이 안

/연합뉴스

박찬호 3이닝 퍼펙트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3이닝 동안 9타자를 연속 범타로 잡아내며 이를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

박찬호는 13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문경기에 12-3으로 앞선 6회 말 등판해 3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실점없이 막았다.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는 완벽투.

평균자책점은 4.85에서 4.66으로 내려갔다. 전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박찬호는 최고 구속 지속 150km에 이르는 강속구와 변화구로 시카고 타선을 요리했다.

'외계인'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6회말 선두타자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시속 143km짜리 낮은 싱커를 던져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제프 베이커를 좌익수 뜯공으로 잡았고 코이 힐도 몸쪽에 푹 떨어지는 나차 큰 커브를 던져 3구 헛스윙 삼진을 빼냈다.

9타자를 상대로 공 26개만 던진 박찬호는 9회 마운드를 채드 더빈에게 넘겼다. /연합뉴스

광주·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 정기셔틀버스운행 (7/25일부터~매일)**

셔틀버스 및 안락 편의 및 예약 : (주)수동관광 062)383-9042